

고규홍의 '나무 생각'



사라져 가는 모든 생명을 기억해야

모네기를 할 즈음이면 물 댄 눈에서 양 증맛은 꽃을 피우는 매화마름이라는 수생식물이 있다.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부유하며 자라는 미세한 식물이다. 지름 4밀리미터 정도로 작고 여린 꽃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생명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비스러운 정도로 아름답다. 그대 봤자 워낙 작은 데다 눈 가운데에 있어 꽃 가까이에 다가서기가 어렵다. 농촌 사람들에게조차 매화마름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은 이유이다. 그나마 가까스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대개 무리지어 피어나기 때문이다.

모네기 전에 농부들은 매화마름을 그대로 둔 채 눈을 갈아엎는다. 어린 생명체는 농부의 삽질에 따라 산산조각 나며 흙 속에 깊숙이 묻히지만 죽는 건 아니다. 꽃을 거두고 잠시 휴면에 들어갈 뿐이다. 땅속에서 보낸 한 해 뒤 보면 매화마름은 어김없이 무성하게 순백의 꽃을 피우며 여전히 살아 있음을 드러낸다.

신비로운 정도로 강한 생명력의 비결은 독특한 뿌리 번식 방식에 있다. 매화마름 식물체의 줄기에는 대나무처럼

마디가 형성되는데, 그 마디마다 뿌리가 나와 자란다. 줄기가 산산조각 나서 흙 속에 묻히다 해도 각각의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며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오히려 더 많은 생명체로 번식할 기회인 셈이다. 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젖은 흙을 뚫고 솟아나서 환희의 꽃을 흐드러지게 피운다.

스라지 질 없음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갖춘 매화마름이건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눈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심지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로까지 지정됐다. 매화마름이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는 치명적인 이유는 농약이다. 아무리 강한 생명이라 해도 사람만큼은 이겨내기 못한 것이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예쁜 꽃 한 종류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한 종류의 꽃이 사라진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어쩌면 하나의 식물 종이 사라진 결과는 더욱 참혹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하나의 꽃이 다시 피어나지 않는다면, 그 꽃송이 안의 꿀을 먹이로 살아가던 한 종류의 곤충이 존재하기 어려워진다.

참담한 사정은 또 이어진다. 한 종류의 곤충이 사라지면 그 곤충의 중매로 꽃가루받이를 이루며 번식하던 또 다른 종류의 식물도 위기를 맞이한다. 그 식물은 필경 어떤 동물의 먹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도 마찬가지로 먹이가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

생태계가 어이없이 무너지는 현상은 끝없이 이어진다. 돌아보면 생명의 위기는 언제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우리는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이어왔다. 하릴없이 자연의 다양성을 희생하면서 단순하고 획일화한 도시로 바꾸어 내는 데에 성공했다. 사람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다른 생명과의 공존은 뒷전으로 밀어냈다. 나무도 동물도 생존 영역을 사람에게 빼앗겼다.

나무와 동물의 몸을 숙주로 공존하던 미생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험악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생물은 독특한 생명으로의 진화를 재우쳤고, 마침내 사람을 숙주로 삼기 위해 찾아온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됐다.

어쩌면 미생물의 침공이라기보다 잃어버린 생존 영역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

결국 생태계에서 이어지는 생존 투쟁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며 이 같은 멸종 위기의 고리에서 사람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총 균 쇠'의 저자이며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같은 현상을 '호모사피엔스의 생태학적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이미 오래전에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 목록'(Red List)에 호모사피엔스를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매화마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미소(微小)한 일이 아니다. 더 알맞은 일인 한 종류의 식물이 사라진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하나의 식물이 사라진 결과가 치명적임을 확인하는 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다. 더 늦기 전에 사라져 가는 우리 결의 모든 생명을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인간의 가장 무서운 병, 심근경색증



정명호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장

최근에 북한 지도자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심근경색증이란 병명이 언론에 자주 언급된 바 있다.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질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병이 심근경색증이며, 치명률도 인간의 질병 가운데 가장 높은 질병이다.

서양에서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약 4분의 1 정도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근경색증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에 기름기나 혈

전이 끼여서 막히는 경우를 말한다. 심장혈관에 기름기나 혈전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에 의하며 우리나라 젊은 환자는 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반드시 금연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름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며, 식은땀과 구토 및 호흡 곤란을 동반할 수 있다. 간혹 어지럽다고 하거나 의식을 잃기도 하며, 운동이나 등산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기도 한다.

흉통이 발생하여 지속되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는 것이 좋다. 119를 부르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심폐 소생술을 포함한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심근경색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준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면 산소 공급, 통증 완화제,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치료제와 심장약 등을 투여받게 되며, 심장혈관 중재술을 통하여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게 된다. 증상 발생 후 한 시간 이내에 성공적인 심장 중재술을 받게 되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체되면 심장 근육이 괴사되어 소기가 발생하거나 심부전증이 발생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심근경색증 환자들의 119 이용률은 21.7%로써 일본의 78%보다 매우 낮으며, 흉통 발생 후 한 시간 만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는 28.4%로써 서양의 90%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심근경색증 환자의 119 이용률 증가 및 빠른 내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심근경색증 환자의 7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데 저염식, 체중 조절을 하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혈압은 120/80~130/90mmHg 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혈당은 공복 시 100mg/dL 이하로, 식후 혈당은 140mg/dL 이하로 조절하고 당화혈색소는 6.5~7.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심근경색증 환자의 흡연율은 아직도 50% 정도로 서양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심근경색증 환자는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예방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심근경색증을 일상 속에서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거두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금연을 해야 하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불러서 1시간 이내에 심장 전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다.

기고

성 착취물 이제 찍는 것도 보는 것도 범죄다



김한중 전남도의회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악랄함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74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 판매한 사건이다. 동성상 시청을 위한 동성 접촉자가 최대 25만 명에 이르며, 일말의 죄책감 없이 성범죄를 관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 글이 여러 건 게시됐다.

'n번방' 사건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죄값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높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점차 은밀화·조직화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연예인 단체 카톡방, 2018년 버닝썬, 1999년 소라넷 사건 역시 방법·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219명으로 이 가운데 강간·강제 추행 등 성폭력은 2431명이며, 카메라 이용 촬영·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는 350명, 성매매 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는

438명이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 91.4%가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카메라 촬영 범죄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도 몰랐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으로 입건된 성범죄자는 평균 24개월의 징역형을 받아 형량이 솥방망이 수준으로 낮다. 실제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 제작은 15~30년, 상업적 유통은 5~2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초범이라고 예외는 없다. 이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형법은 어떠한 위력도 없어 보인다.

'n번방'의 성 착취물 피해자는 74명이지만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는 20여 명 뿐이다. 그만큼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담·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길 꺼린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사회적 2차 가해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두려워하

는 이유이다. 피해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지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하여 제2의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22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늦게나마 국회에서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자·구입·저장은 물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통과됐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구축,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이다. 'n번방' '박사방' 등 각종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社說

주남마을 버스 충격 진상도 꼭 밝혀내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광주 외곽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광주시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잇단 버스 충격 사건이 대표적이다.

평화롭던 주남마을의 비극은 그해 5월 21일 광주에 급파된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그 참상이 외부로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 외곽에 위치한 이 마을에 들이닥쳐 봉쇄 작전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80년 5월 23일 오전 주남마을에 주둔해 있던 11공수여단이 광주-화순 간 국도를 지나 가던 25인승 버스에 충격을 가해, 승객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돼 있다. 계엄군은 부상자 중 두 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한 후 암매장했다.

주남마을 버스 충격 사건은 검찰 조사 등에서는 단일 권으로 결론지어졌지만 이후 유사 사건이 몇 건 더 있다는 증거이

있었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가 작성한 '작전 상황 일지'에는 '5월 23일 오후 3시 30분 광주 소태 폭도 50명(버스 1대) 군부대 기습기도. 군부대(11공수) 반격 소탕. 생포 3명(부상 2명). 사살 17명'으로 적혀 있다.

5·18 연구자들은 군·검찰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버스 충격 사건이 모두 네 건이며 피해자는 3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자 한 명을 포함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에 불과하고 22명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남마을은 5·18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 및 암매장의 현장이자 행방불명자들을 찾는 단서가 될 유력한 장소로 꼽히고 있다.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힌 지 40년이 지났지만 주남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모내기철이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들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다.

한빛원전 폐쇄 이후 지역경제 대책은 있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노후한 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5년 뒤인 2025년에 폐쇄된다. 2호기와 3호기도 2026년과 2034년에 각각 폐쇄될 예정이

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 틀인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에 따르면 현재 46.3%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의 설비 용량을 2034년까지 24.8%로 줄이고, 대신 15.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로 사양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심근경색증 환자는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예방 및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심근경색증을 일상 속에서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거두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금연을 해야 하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불러서 1시간 이내에 심장 전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다.

의존도가 높다. 전남도의 용역 결과 영광 지역 내 총생산 중 한빛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65.2%에 달한다. 또한 한빛원전이 2013~2017년 영광군에 납부한 지방세도 군 전체 세입의 50%를 차지할 정도

이다. 이 때문에 향후 한빛원전 1·2·3호기가 차례로 가동을 멈추게 되면 핵 불안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지역 경제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따라서 한빛원전 폐로(閉露)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또한 중요하다. 정부와 탈(脫)원전 정책은 핵과 화학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남도, 영광군을 비롯해 지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감염병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치명적이다. 14세기 몽골군의 시신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유럽 중세도시의 인구 2500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17세기 영국과 19세기 중국 등에서 다시 위력을 떨쳤던 이 감염병은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항생제 페니실린이 등장하며 점차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2002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최근 감염병의 도시 침공은 4~7년 간격으로 계속되고 있다. 의료 기술, 방역 체계, 위생 수

손등과 손바닥

준 등의 발전으로 이를 간신히 방어하고 있지만, 과거 어느 시대보다 과도한 인구가 모여 사는 현대의 도시들은 감염병에 있어서 큰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염병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도시'의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정적인 '대면 접촉'이 가능한 도시 공간 구성 방안을 고민하고,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가 농어촌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현명한 분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도시의 과밀에 의한 감염병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과 초과밀로 인한 지방의 소멸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국토 균형 발전 분야에서만큼은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듯하다. 지난 4월 현재 인구 5184만 명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2598만 명을 넘어서 절반을 초과한 지 오래며, 수도권의 소득도 이미

60%를 넘어선 가운데 2015년 이후 더 증가하는 경향마저 보였기 때문이다.

도시는 농어촌으로 인해 존재한다. 인재와 물자의 대부분을 농어촌으로부터 수혈받고 있다. 수도권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 없이 수도권이었을 수 없다. 마치 손등과 손바닥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그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단박이라도 같았던 '혁신도시' 약속도 다해 가고 있는 지금, 가장 열악한 지방에 대한 정부의 깎짝 놀람 만한 부양 대책이 절실하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